

# 주요 정기선사들, 중국수요 확대로 수익 급증

## 중국 COSCON 상반기 영업이익 58% 증가

해외 주요 정기선사의 2005년 상반기 실적이 중국수요의 확대 등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시장에 상장된 중국 COSCON Holdings Company가 발표한 올 상반기중 컨테이너선 부문(COSCON)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한 25억9,800만 위안이고, 매출 또한 157억 1,200만 위안으로 26% 성장했다.

이 회사의 컨테이너화물 수송량도 국내분을 포함하여 22% 증가한 215만7,000TEU를 기록하였다.

컨테이너 터미널, 포워딩 부문 등을 포함한 중국 COSCO 전체의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39억 5,400만 위안, 당기이익은 36억3,200만 위안으로 58% 증가했다. 매출은 28%증가한 185억 7,700만 위안을 달성했다.

COSCON의 운항 선복량은 30만5,402 TEU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항로별로 보면, 태평양, 아시아-유럽, 아시아 역내와 중국 국내가 2자리수로 증가하여, 대서양 등 일부의 항로만이 마이너스였다. 대형선 취항 등으로 비용 절감에 앞장섰지만, 서비스비용은 22% 증가한 114억4,200만 위안으로 상승했다.

세계 주요 정기선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와 선복 부족을 계기로, 운임을 회복시켜 12개사 중 과반수인 7개사가 영업이익율 10% 초과하여 수익력이 회복되었다.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12개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선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Yang Ming 등 3개사이다. Evergreen과 CP Ships는

영업이익이 각각 3.5배, 2.1배 급증하였다. P&O Nedlloyds, COSCON, CSCL, OOIL도 두 자리수 이상의 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율에 대해서는 CSCL이 20.5%로 가장 높고, 최하위인 CP Ships와는 17% 가까이 차이가 난다.

### 호주, 해운동맹 폐지 여부 2개월 내에 결정 운송장관 생산성향상위원회 제안 수용여부

호주의 운송장관은 그 동안 정기선사에게 인정되어 왔던 경쟁법 적용면제조항(Part X)을 폐지하거나 상당부분 수정하겠다는 생산성향상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2개월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생산성향상위원회는 동맹소속 정기선사들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무역법(Trade Practices Act) 제10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바 있다. 호주의 화주협회(Australian Peak Shippers Association)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특히, 최근 비동맹 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생산성향상위원회의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머스크시랜드가 피엔오 네들로이드를 인수함으로써 세계주요항로에서 20% 가까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것과 머스크시랜드가 합병 이후 호주항로의 주요 해운동맹 및 컨소시엄 체제를 이탈하고, CMA CGM도 호주항로를 이탈하는 등 정기선사들의 협력 체제는 자연적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한편, 호주항로를 주로 운항하는 선사협의체인 호주항로 정기선사협의회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 생산성향상위원회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운송장관은 말했다.